



Hi Sisters, gla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ay hello and share my mini life sketch with you. I'm Sister Barbara Ann Smelko who entered the community in September 1960. I grew up in Hazelwood near Pittsburgh and was educated by the Sisters of Charity from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Our Sr. Inez Mary Beckel taught me piano from second grade into my junior year at which time I



became the organist for St. Barbara Parish in Presto, PA. After attaining my Seton Hill music degree, I went on to complete a Master's in Church Music and Liturgy at Saint Joseph College in Rensselaer, IN. I owe connecting with earth to my annual week grandparents who had a small family farm. It experience I had with our simple backyard Hazelwood and the Easter peeps we raised. A few Sunday's each summer the family trekked to a forest park for the day or sometimes tented overnight.

vacation with my expanded the strawberry patch in

Fifteen years of music ministry in Arizona introduced me to the desert landscape where on one of my many hikes I became deeply aware of life that is unique to stone and mountain boulders. Desert life, the gazillion stars, planets, and galaxies of the night sky, and the Allegheny National Forest of Pennsylvania meshed into one cosmic mystery for me. The past five years of vocation ministry diverted me from church music into a retreat of deep listening



to our community's story and God's call for our continued evolution. The 2015 Federation's Emmitsburg charism retreat, "Cosmic Symphony of Love Unfolding", was a divine call to me and for the eight of our sisters on the retreat to embrace our own congregational landscape and open it once again to fruit bearing plants. In less than a year the Sisters of Charity and Seton Hill University

Garden Partnership was begun and did just that: on May 24, 2016 seed potatoes were planted. The land is calling us to continue our new direction. Vocation is alive when open to relationships with people, the earth and the cosmic universe. I laugh at being recycled but then again I may be just rotating crops.





수녀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녀님들과 함께 제 삶의 작은 스케치를 나누며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발바라 앤 수녀, 발바라 앤 스멜코 수녀입니다. 1960년 9월에 입회했지요. 피츠버그 주 근교의 헤즐우드(Hazelwood)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씨튼 수녀님들에게 배웠어요. 이네즈 메리 베켈 수녀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주 프레스토의 성 발바라 성당에서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답니다. 씨튼 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에 인디애나 주의 렌셀러(Rensselaer)에 위치한 성 요셉 대학에서 교회음악과 전례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갖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매년 휴가를 같이 지냈어요. 그 덕분에 헤즐우드에서도 부활병아리를 키웠고요. 해마다 여름이면 주일에 가족들은 숲으로 트레킹을 가기도 했고 때론 밤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도 했지요.



저는 시골에 작은 농장을 함께 보낸 덕분에 흙과 작은 딸기 텃밭을 가꾸었고

저는 15년 동안 아리조나에서 교회 음악 사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를 사막의 풍경으로 인도해 주었지요. 그곳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어느 날 돌과 바위산만이 가진 특별한 생명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사막의 생명,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행성들, 밤하늘의 은하수, 펜실베이니아의 앨러게이니 국유림,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우주의 신비였지요. 그리고 지난 5년

간의 성소 사도직은 저를 교회음악에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와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부르시는 하느님께 깊이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2015년 연합회의 에미츠버그 카리스마 피정 "사랑이 펼치는 우주 교향곡"에 참가한 것이 저에게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피정 중에 8명의 우리 수녀님들은 수도회의 자연경관을 마음에 품어 안고 다시 한 번 그 자연



을 열매를 맺는 식물들에게 내어주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 후 1년도 채 안되어 우리 수도회와 씨튼 힐 대학의 협력 농장이 시작되었고 2016년 5월 24일에 드디어 씨감자를 심었답니다. 땅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사람들과 지구, 우주 전체와의 관계에 열려있을 때 성소는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그저 땅에 작물을 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활용(recycled)'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